

자연과 시간이 빚어낸 고즈넉한 정원, 담양 ‘명옥헌 원림’

조선 선비정신 담은 전통 별서정원… 배롱나무꽃 ‘절정’

담양군 고서면에 위치한 ‘명옥헌 원림’은 조선시대 선비들의 자연관과 사유의 공간이 고스란히 담긴 전통 별서정원이다. 최근 들어 계절마다 다른 풍경을 즐기 위한 여행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며, 담양을 대표하는 정원문화 자산 중 하나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

명옥헌 원림은 조선 중기 문신 오희도 선생의 아들 오이정 선생이 부친을 기리기 위해 조성한 별서다.

정자 이름인 ‘명옥헌(鳴玉軒)’은 정자 뒤로 흐르는 샘물 소리가 옥구슬이 부딪치는 듯 맑고 고왔던 데서 유래했으며, 당대 대학자 우암 송시열이 직접 지은 이름으로 전해진다.

정자와 정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이 공간은 단순한 풍경을 넘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며 사색과 학문에 몰두했던 선비정신을 느낄 수 있는 철학적 공간이다.

명옥헌으로 향하는 길은 차량 진입이 제한돼 있어 주차장에서 약 700m 정도를 도보로 이동해야 한다.

자갈길과 흙길을 따라 마을을 지나며 시골의 소박한 풍경과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길은, 이 정원이 가진 ‘느림의 미학’을 자연스럽게 체험하게 해 준다.

정원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시선을 사로잡는 것은 정자 앞에 위치한 두 개의 연못이다.

이는 조선 전통 정원양식 중 하나인 ‘방지원도(方地圓島)’ 구조로, 사각형 연못 안에 둥근 섬을 배치해 자연의 이치를 형상화한 형태다.

연못 주변으로는 수령 100년이 넘는 배롱나무(목백일홍)와 소나무들이 어우러져 고즈넉한 풍경을 이루고 있으며, 특히 여름철이면 붉게 물든 배롱나무꽃이 연못수면 위로 흠날려 정원의 아름다움이 절



정을 이룬다.

‘백일 동안 꽃을 피운다’는 의미를 가진 배롱나무는 선비의 끈기와 절개를 상징하는 나무로, 조용히 꽃을 바라보며 잠시 사색에 잠기기에 더없이 좋은 풍경을 선사한다.

명옥헌은 규모는 크지 않지만 사방이 트인 구조로 되어 있어, 마루에 앉으면 고요한 숲과 연못이 한눈에 들어온다.

인공을 최소화한 정원은 자연을 거스르

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며, 자연과의 조화를 통해 인간 중심이 아닌 ‘자연 중심’의 정원미를 보여준다.

담양군 관계자는 “명옥헌 원림은 조선 선비들의 삶과 정신을 간직한 역사문화 자원으로, 계절마다 변화하는 자연 속에서 쉼과 사색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장소”라며, “특히 배롱나무꽃이 만개하는 여름철에는 담양의 또 다른 매력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담양/이종욱 기자



고흥군, 고품질 조생 복숭아 본격 출하 시작

선도유지 기술로 수출 경쟁력·브랜드화 본격화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조생 복숭아가 본격적인 수확철에 접어들어 최근 출하를 시작했다고 17일 밝혔다.

고흥은 온난한 기후와 풍부한 일조량으로 6월 상순부터 복숭아 수확이 가능해 시장 선점에 유리하며,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48.1헥타르(ha), 94 농가에서 생산하고 있는 고흥산 조생 복숭아는 아삭한 식감과 높은 당도로 소비자들에게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고품질 복숭아 생산을 위해 고흥군 농업기술센터는 2025년 농촌진흥청의 ‘수출용 복숭아 선도유지 신기술 적용 시범사업’에 선정돼, 2년간 총사업비 3억 원을 확보했다. 이에, 수확 후 신선도 유지 장비, 해충 발생 밀도를 줄이는 친환경 고미교란제, 이상기상에 대응하기 위한 미세살수 장치 등

을 농가에 지원하고 있으며, 오는 10월에는 복숭아 재배기술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홍콩으로 복숭아를 수출하고 있는 한 농가는 “고흥군 농업기술센터의 세심하고 아낌없는 지원 덕분에 수확 후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어 장거리 수출 기반이 차츰 마련되고 있다”며, “앞으로 고흥 조생 복숭아의 수출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고흥은 조기출하에 유리한 기후조건과 기술 지원이 더해져 충분한 시장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며, “다만 최근 기상 요인으로 탄저병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강우 전후 약제 방제를 철저히 하고 통풍 관리 및 약제 교호 살포 등 정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고흥/박도일 기자

강진군(군수 강진원)은 최근 쌀귀리와 쌀보리 수확기에 접어들며 국내 대형 온오프라인 할인점과 쇼핑물 담당자들이 수확 현장을 방문해 맥류 품위와 수량 등 작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18년 동안 강진군 식량작물 농업인들과 상호 신뢰 속에 계약재배를 진행 중인 ㈜두보식품과 강진군 농업기술센터 주관으로 이뤄졌다.

이마트는 국내 3대 대형마트중 하나로 강진산 쌀귀리를 가장 많이 취급하는 곳이다. 농산물 입점 절차가 매우 까다롭기

강진군 쌀귀리·쌀보리, 대형 유통망 진입 청신호

지속 가능한 생산·판매 연계 전략으로 지역 농업인 소득 향상 기대

로 알려져 있으며 노브랜드라는 자체 브랜드를 운영 하고있다. 쿠팡은 국내 최대의 오픈 마켓으로 최근 대규모 농산물 매입과 할인판매 등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해 프리미엄 농산물 라인업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업체이다.

대형 업체의 방문은 농업기술센터 관계관의 강진군 쌀귀리·쌀보리의 역사, 재배

현황 및 특징점 등을 판매자의 관점에서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브리핑을 시작으로 이어 함께 배석한 재배농가 대표들과의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이후 강진을 학명리 쌀귀리 단지과 마량면 원토리 일대의 쌀보리 단지 일대에서 현장 확인이 이뤄졌고, 업체 관계자들은 지난 파종-월동기 기상이면 상황 속에

서도 우수한 품위를 유지하고 있는 강진 쌀귀리와 쌀보리 원료곡을 확인하며 연이어 호평을 내놓았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농산업을 고품질 생산도 중요하지만, 판매가 보장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면서 “앞으로도 생산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홍보·마케팅을 통해 강진군 맥류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공급을 확대해, 지역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진/손경설 기자

나주시, 농촌공간 재생사업 또 선정… 5개 읍면 활성화

농식품부 농촌 협약 공모 선정… 국비 236억 확보

전남 나주시가 남부권역 농촌 공간 재구조화 사업에 이어 동부권역사업 추가 선정을 통해 남평읍·금천·산포·봉황·다도면 5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나주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5년 농촌 협약’ 공모에 최종 선정돼 국비 236억원 등 총사업비 337억원을 확보하고 대규모 재생 활성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농촌 협약’은 농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살고 싶은 고장으로 만드는 ‘농촌 공간계획’ 이행에 필요한 사업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지원하는 제도다.

나주시는 연말까지 기존 농촌 공간 재구조화 기본계획과 수립 중인 시행계획을 전문가 자문을 통해 보완하고 농식품부 검토와 승인을 거쳐 세부 사업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2026년 상반기 착공을 시작으로 향후 5년간 추진된다. 농촌

중심지 활성화, 기초생활거점 조성,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선 등 주민 생활에 밀접한 기반 시설 확충에 주력하게 된다.

나주시의 이번 공모 선정은 지난해부터 시행된 ‘농촌 공간 재구조화·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춰 농촌공간계획 기본계획 시범 지구에 선제적으로 참여하고 사전 준비를 충실히 한 결과로 평가받고 있다.

앞서 나주시는 지난 2021년에 농촌협약에 처음으로 선정돼 현재 남부권을 중심으로 327억원 규모의 ‘영산강변 생활권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윤병대 시장은 “이번 동부권 농촌협약과 영산강변 생활권 사업을 양측으로 삼아 권역 간 균형 발전을 이끌겠다”며 “정주 여건 개선과 생활 서비스 확충을 통해 사람이 돌아오고 머무를 수 있는 농촌, 활력이 살아나는 농촌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나주/이명열 기자

곡성군은 관내 대표 과수 수출단지인 곡성군배영농조합법인이 2018년부터 2024년까지 7년 연속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운영실태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며 명실상부한 전국 최고 수준의 과수 수출단지로 자리매김했다고 17일 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매년 실시하는 이 평가는 전국 182개 농산물전문생산단지를 대상으로 수출실적, 조직운영, 품질 및

곡성군배영농조합법인,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최우수’선정

연간 500톤 수출, 호주·뉴질랜드·미국 등 글로벌 시장 공략 박차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등급을 매긴다. ‘최우수’ 등급은 총점 90점 이상을 획득한 단지에만 부여되는 최고 등급이다.

지난 2000년에 농산물 전문 생산단지로 지정된 곡성군배영농조합법인은 꾸준한 품질 개선과 체계적인 농업 경영을 통

해 고품질 배 생산과 수출 기반을 탄탄히 다져왔다. 특히 글로벌 GAP 인증을 비롯한 철저한 안전성 관리와 함께, 선별·포장·유통에 이르는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조직화 교육을 통해 시장 개척에도 힘쓰고 있다. 그 결과, 연간

500톤 규모의 배를 호주, 뉴질랜드, 미국 등 고품질을 요구하는 해외 시장에 수출하며, 매년 약 20억 원의 외화를 안정적으로 벌어들이고 있다.

군 관계자는 “7년 연속 최우수 등급 선정은 배 재배 농가의 철저한 품질 관리와 수출에 대한 높은 의지가 만들어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수출기반 조성 과 농가의 소득 향상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곡성/이정수 기자

영암군(군수 우승희)이 이달 26일 청소년센터에서 통합돌봄을 주제로 올해 첫 ‘영암군민 아카데미’를 개최한다.

공개특강으로 진행되는 이날 아카데미는, 올해 전국 군 단위 최초로 통합돌봄추진단을 신설해 체계적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는 영암군의 돌봄 정책을 알리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

유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합지원정

영암군, 통합돌봄 주제 올해 첫 영암군민 아카데미 개최

책개발센터장이 강사로 나와 통합돌봄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유 센터장은 보건복지부 등의 어르신 의료·돌봄 통합 지원 운영모델 개발,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효과성 평가연구 진행 등을 담당할 통합돌봄 전문가다.

영암군민 아카데미는 사전 신청 없이 현장을 찾은 누구나 무료로 들을 수 있다.

노재영 영암군 인재육성체육과장은 “초고령사회에서 발생하는 돌봄 공백 문제를 이해하고, 민관 협력 돌봄으로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 강연에 많은 관심

과 참여 바란다”고 전했다.

민선 8기에 새로 개편된 영암군민 아카데미에는 모종민 교수, 김제동 방송인, 한문철 변호사, 김영하 작가, 권일용 프로파일러, 이금희 아나운서, 김미경 MKYU 대표, 최재천 교수 등 다양한 분야의 저명한 인사들이 강사로 나와 삶의 지혜를 전달했다.

영암/김희선 기자

